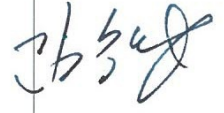




	회 장
상근부회장	
	

2013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3. 12. 23.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12. 23(월) 16:00 ~ 16:55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27명 중 19명 참석(감사 2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5명) : 이동한, 송옥희, 고치환, 김재익, 분형중, 박정해, 양은정, 양은심, 김금자,
양광호, 김호성, 황의식, 김군택, 고두승, 임태봉

나. 위임(4명) : 김성산 고은택, 강동화, 최영열,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부장의 성원보고 후 이동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다. 오늘 이사회는 제5대 임원 임기 중 마지막 이사회로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하다.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김성건 부장의 전차회의록 낭독에 앞서 회의자료에 첨부된 사안임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3회 후원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3회 아동청소년 나이트케어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1회 자활근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7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8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8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채택된 심의안건 제1호, 제2호 의
안 심의 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다.

- 임주리 회원 : 제1호, 제2호 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을 제안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제2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과 복지관 권미애 부장, 어린이집 이승희 원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 제2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권미애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3호 ~ 제7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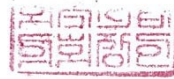
- 이승희 원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8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양광호 이사 : 현재 이사회 회의자료 예산서들을 살펴보면 산출기초에 천원단위로

표기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산출기초에는 원단위까지 표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회의자료 예산서 작성시에는 산출기초에 원단위까지 표시해달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다음 회의자료부터는 예산서 산출기초의 금액을 원단위로 표시하겠다고 하다.



- 황의식 이사 : 회의자료 111쪽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내용에 합창단 구성과 관련하여 지도 강사는 가급적 좋은 인력을 섭외해야 할 것 같은데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으로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다고 하다.
- 권미애 부장 : 올해 복지관에서 아라음악회를 개최했을때 제주대학교 음악학부에서도 참여를 했다. 그 인연으로 제주대학교 음악학부에서 그 수준의 강사료로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하다.
- 황의식 이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 내용에서 127쪽의 사례 발굴에서 요보호대상자 선정관리 6명을 포함해 사례관리 대상이 총 56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는 것인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기존 관리대상자들 외에 추가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목표라고 하다.
- 황의식 이사 : 사례관리 담당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별도의 전담인력은 없으나 사례관리팀 2명이 담당한다고 하다.
- 황의식 이사 : 현재 저희 지역아동센터 20여명의 아동들의 경우 연간 50% 정도인 10여명에 대한 사례관리도 어려운 상황인데 56명은 사업량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며 10명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고 하다.
- 조성태 관장 : 집중사례관리와 일반사례관리로 모델을 구분해서 집중사례관리의 경우는 통합사례관리로서 연계 기관들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다.
- 임태봉 이사 : 사업목표가 통합사례관리 모범 복지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사례관리를 보통 집중사례관리나 위험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나 단순사례관리로 구분들을 하는데 여기서 50명과 6명에 대한 구분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황의식 이사님의 의견대로 집중사례관리는 6명에서 8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적인 정부의 정책서비스가 연계되어있는 것을 통합사례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합사례관리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사회보장적인 정부의 통합사례관리 메커니즘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또한 사례관리 목표나 대상을 집중사례관리인지 일반사례관리인지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인원 56명은 사업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하다.

- 의 장 : 황의식 이사와 임태봉 이사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다.
- 양광호 이사 : 회의자료 111쪽의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조금 다듬어야 할 것 같다. 현재는 문제점들만 나열해 놓은 것 같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법에서도 아라동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고두승 이사 :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분명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했을텐데 이 회의자료에는 사업내용을 요약하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빼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다.
- 부형종 이사 : 아라지역에도 최근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기존의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학생들과의 양극화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당초 신청된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향후 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됨으로 가급적 기본적인 계획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후에 이러한 사항

까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박정해 부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라면 현재 회의자료의 내용보다 구체적 사업계획들이 신청서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하며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 임태봉 이사 : 지역사회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아라종합사회관에서 핵심역량 사업으로 삼고 1년 사업이 아니라 2년, 3년 연차사업으로 기획해서 매년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급변하는 아라동 지역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다양한 사업추진 방법 등이 있겠지만 많은 이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준다면 좀더 발전적이고 좋은 내용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 양은정 이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예산내역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대비 감액되고 어르신여가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증액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묻다.
- 권미애 부장 :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아동이 감소에 따른 보조금 수입이 감액된 부분이고 자활근로사업의 경우는 사업수익금 및 적립금을 제주시로 반환하게 되어 이월금이 감소한 부분이며, 어르신 여가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바우처사업으로 대상어르신이 증가하여 보조금 수입이 증액된 경우라고 하다.

- 김군택 이사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원안통과를 건의하다.

- 의 장 : 김군택 이사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원안통과 의견에 대해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제청하다.



- 의 장 :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인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3년도 제3회 후원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3회 아동·청소년 나이트케어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제1회 자활근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7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8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8. 폐 회

- 의 장 : 오늘 장시간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부형종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3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6:55)

2013년 12월 23일

회 장 : 이 동



이 사 : 고 치



김 재 익



송 옥



부 형



박 정



양 은



양 은



김 금 자



양 광



김 호



황 의



김 군



고 두



임 태 봉



확인자 : 김 수



기 록 : 김 성

